

사회복지시설 탐방 26 포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종해 소장

“가정봉사원 노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포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파견봉사원센터는 (사)더불어 사는사회에서 지난해 5월 27일 포천지역 1만 7천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돌보기 위해 인가받아 개소하게 됐다.

가정파견봉사원센터에서 봉사원을 파견하는 대상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장이 있고,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한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독거노인으로 가정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기타 복지시설시각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포천에서는 현재 20명의 가정봉사원과 10명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파견봉사원센터에서는 이종해 소장을 센터장으로 전역은 사회복지사, 김갑순 선생이 근무하고 있다. 이종해 소장은 “노인 1인당 1주일에 1회이상 방문할 계획”이라며 “현재 가정봉사원 20명이 확보돼 40~50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봉사자 1명당 돌볼 수 있는 노인은 8명까지이다. 가정파견봉사원센터 봉사원들이

노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식사, 화장실이용, 목욕, 옷감아 입히기 등의 신체수발 취사, 청소, 생필품 구매 등의 가사지원, 의출시 동행·부축 등의 개인활동, 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의 우애서비스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 기능회복훈련 지역사회 내 노인 자립생활 상담 및 질환,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지역사회복지지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무료타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가정파견봉사원센터의 운영은 개소 당시 100%로 법인에서 부담하던 것이 올 8월부터 포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등 4~5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소장은 “센터가 지원을 받게 된 데는 지난해 개소이후 꾸준한 봉사를 통해 가정봉사원의 역할과 위상이 적절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연간 1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시의 지원문제로 점진적인 운영비 증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가정파견봉사원센터에서는 가정봉사원의 실비봉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올 10월부터 내년 1월 까지 실비지원차원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소장은 “인근 경기도 일산의 경우 가정파견봉사원에게 2년천



포천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원인은 이종해 소장)

원~2만5천원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포천은 1회 봉사당 1만원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파견봉사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화, 내방 및 방문, 서신 등의 상담사업과 가사지원, 개인 활동지원, 우애 조성 등의 기본서비스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지만 앞으로 목욕·용변수발 등의 특별 서비스와 식사배달, 밀반찬지원, 이미용서비스, 차량지원, 생활잔치 등의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소장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며 “관인 및 아동 등 원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봉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가정파견봉사원은 (사)더불어 사는사회가 펼치고 있는 물품후원 및 지원 사업에 올 5월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양말과 파스 등의 약품을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소장은 “가정파견봉사원센터는 앞으로 가정봉사원 양성, 관내 시

설과의 유대관계유지, 노인시설과의 연계 등 산제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가정파견봉사원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양성된 봉사원들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전문적인 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노령화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후원 : 농협 170202-55-000489 (예금주: (사)더불어사는사회) 문의 : 031-534-8879~80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심터

정도껏 산다는 것



석혜승
문명사주지

호박에 줄을 그어도 호박은 여전히 호박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지나치게 욕망에 치중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말이다.

그런데 호박에 줄을 그으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뭔가 독특하고 저만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역설적 표현이다. 듣고 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헛갈리기도 한다. 가령 어디를 가더라도 분수에 맞게 단정하게 입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좀 비싸더라도 좀 격이 높게 보이는 옷을 입는 것이 나은지 하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핸드폰을 사는 것, 차를 사는 것, 집을 구하는 것 등 모두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하다.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가? 아

니면 좀 힘들어도 가끔은 소위 말하는 명품을 구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말에는 ‘정도껏’이라는 말이 있다. 정도껏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를 넘어섰을 때 문제가 된다. 분수만을 주장하는 것도, 명품만을 고집하는 것도 지나치게 한쪽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도껏 생각하고 산다는 것 정도껏 사는 일은 아니겠지만 사람 사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논리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야 뭐’ 하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이 더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의미의 쫓소 사랑야기 6

영천목장의 행복

나의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목장을 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사, 밭농사를 같이 하시다 보니 항상 바쁘게 일을 열심히 하시며 부지런히 지내셨다. 하지만 나는 시골 생활이 싫어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중장비 사업을 하던 지금의 연흥 아빠랑 결혼을 했다. 의정부 아파트에서 신혼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가산동 권현리

우사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집은 이사날짜를 맞추어야 하므로 건축업자에게 조립식으로 빨리 지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4월 7일 드디어 이사날이다. 친정 영천목장에서 소가 우리집 영천목장으로 소가 이사를 하고 아파트 살림도 같이 이사를 했다. 목장을 하며 첫째 연흥이를 출산했다. 둘째를 임신한지 6개월 일때 구경용 맞아 친정에 갔다. 친정아버지가 허리디스크로 더 이상 목장을 하시기가 힘들다라고 하셨다. 연흥아빠는 목장을 하겠다고 하며 가방에다 속옷 몇 벌이랑 생활용품들 챙겨 먼저 가서 목장일을 아저씨한테 배우며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란 우사를 지어야 하니깐 연흥 엄마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주고 오라고 했다. 전세가 빨리 나가서 이사는 9월 4일 7일날 하기로 했다. 2월에 내려온 연흥아빠는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랑 착유를 하고는 800여명 목장을 직접 지었다. 연흥 아빠 친구들도 와서 용접을 해주고 외갓집 오빠들도 너무들 고맷다. 나는 둘째 연흥을 임신해 배가 불러 뒤통거리면서 점심과 출출함을 가져다주었다.

목장에서 우유값을 유대라고 하며 한달에 두 번 7일과 22일, 농협 통장으로 입금된다. 오늘 22일인 유대날이다. 가산 농협에서 유대를 찾으면 사료 값을 주고 저금도 하고 시장도 본다. 우리 가족은 차가 없던 친구를 만나게 된다. 하필이면 남사 동창을 만난다. 당시에는 참 피하고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쫓소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주어 행복하며, 목장을 시작하면서 둘째 연수와 막내 윤주가 태어났고 어미소들도 새끼를 낳아 모두가 대가족이 되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다.

소홀음부녀회 남몰래 이웃사랑

시한부 윤여춘 씨 위해 400만원 성금 전달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소홀음부녀회(회장 이장수)의 대를 이은 '남몰래 이웃사랑'이 알려져 화제다.

황금자 전 면부녀회장, 최계옥 전 면부녀회장(현 시부녀회장), 이장수 읍부녀회장과 회원들이 그 주인공.

소홀음부녀회는 지난 28일 소홀읍사무소에서 이영재 소홀읍장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유방암과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소홀읍 박찬여(여·송우5리)씨의 안락한 삶을 위해 박씨의 가족에게 400만원을 전달했다.

박찬여 씨의 남편인 윤여춘 씨 역시 6년 동안 3번에 걸친 뇌졸중 수술 끝에 현재 의식만 있을뿐 식물인간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소홀읍부녀회가 1994년부터 재입한 황금자 면부녀회장 당시 실시한 일일차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웃을 돕고 남의 소식을 접한 부녀회원들과 관계자들이 성금을 인수, 지속적으로 관리해 생활고와 백혈병 등으로 고생하는 이웃을 위해 지출해 왔다. 현재 성금은 이장수 읍부녀회장이 관리하고 있다.

최계옥 전 면부녀회장은 “박찬여 씨의 남편인 윤여춘 씨의 경우 혼



소홀읍부녀회는 지난 28일 소홀읍사무소에서 유방암과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소홀읍 박찬여(여·송우5리)씨의 안락한 삶을 위해 400만원을 전달했다.

수상대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역시 오랜 병시중으로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관계기관이나 관심 있는 이웃의 배려 속에 적당한 시설에 위탁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금 전달 당시 시한부로 성모병원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윤여춘 씨가 성금 전달 당일인 28일 사망, 간발의 차이로 윤씨의 소식을 접한 부녀회원들과 관계자들이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한편 박찬여씨와 고인이 된 윤여춘 씨는 노모를 모시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84세의 노모가 외병중인 아들을 병시중하고, 큰 딸이 어머니의 병시중을 돕고 있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노훈심 · 부총무

배드민턴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에 도움 독자에게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신문되길

지난 94년도에 직장따라 포천에 들어와 96년 결혼하여 가산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노훈심(34) 부총무는 포천이 자랑하는 배드민턴 선수다.

지난 2000년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한 노 부총무는 배드민턴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을 날린다고 건강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노 부총무는 포천시배드민턴연합회 가산클럽 총무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가산초등학교 다목적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나답게 살자”를 평소 생활철학으로 삼아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자존심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포천신문과 인연은 가산초등학교 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주부명예기자로 추천하면서부터다.

노 부총무는 “주부명예기자단 단원 여러분의 수준이 매우 높고 생각이 진취적이며 스케일도 커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며 “독자에게 있는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는 포천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편과 함께 솔바람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는 노 부총무는 현재 1만주 정도 소나무를 잘 가꾸고 있다고 한다. 최근 소위 ‘소나무에이즈’라 불리는 해충 때문에 남쪽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소나무들량이 크게 줄어 이곳의 소나무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주로 조경업자들에게 도매로 판매하는 솔바람수목원은 노 부총무 남편의 정성이 만들어진 예술품이다. 주당 30만원선에 팔리는 소나무가 아이의 미래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아이도 학교갈 때 소나무에게 잘 자라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부총무의 역할도 배드민턴과 수목원에서 소나무 기르는 것처럼 멋지게 실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명희 · 부총무

포천시는 도로·교통·교육문제 해결해야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주위의 권유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가 되었다는 김명희(38) 부총무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신조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은 활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총무로서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지만 배우기며 노력할 작오는 되어 있다고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도로교통문제와 교육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다할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주부명예기자단 활동에 대해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김 부총무는 유심론을 가장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말 그대로 모든 건 마음에 있다는 것이 마음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끌어 주는 주춧돌이 되곤 했다고 한다.

가정에서 엄마로서 김 부총무는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항상 기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부명예기자로써 포천신문에 대해 김 부총무는 “훌륭하신 분들의 숨은 노력으로 오늘날 포천신문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더욱 더 발전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얼씨구 문화포천, 자원봉사자로 알려요”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포천시 자원봉사자들이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의 성공을 다짐하며 발대식을 가졌다.

포천시는 지난 26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자원봉사자 100여명과 관련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따른 사전교육 등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원봉사자들의 각자 개성을 키워내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이날 발대식은 이 밖에

행사설명과 자원봉사자 대표의 결의문 낭독,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행동요령 안내, 각 분야별 모임 등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1일부터 4일까지 나흘동안 축제가 열리는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땀흘리고 날뛰기, 도예 및 물레, 한지 및 규방공예, 허브향기터널, 전통차만들기 체험장 등에서 참가자들을 돕게되며, 셔틀버스 승차차 도움 장애인과 미아들을 돌보며, 지역 관광지와 포천반월아트홀 공연 등을 안내한다.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지난 26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마련됐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원여대 강사 및 대청 A&A 원장 임성은 강사의 자원봉사자 예절 등에 대한 특강을 통해 자원봉사 교육을 이어졌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구마와 함께 봉사활동 떠나요”

가족봉사단 고구마 수확해 불우이웃 제공

가족봉사단(회장 정종철)은 지난 22일 신북면 하삼곡에 위치한 300여평의 주말농장에서 고구마를 수확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해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가족봉사단은 첫날인 22일 수확한 고구마를 지난 24일 신북면 삼성당리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마리아의 집에 제공하고 노력봉사를 실시하는 등 시설 관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미희 가족봉사단 총무는 “비록 적은 양의 수확물이지만 관내 불우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마리아의 집을 시작으로 몇몇 시설을 정해 고구마 제공과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봉사단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올해 처음 11가족이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생산물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한편 가족봉



가족봉사단은 지난 22일 신북면 하삼곡에 위치한 300여평의 주말농장에서 고구마를 수확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해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300여평의 밭은 적십자 은행나무 봉사단의 임과 기원까지 무상 제공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석유보다 값진 사랑의 연탄”

영북면 기수연합회, 57가구 2만여장 연탄배달

영북면 기수연합회(회장 전상수)는 지난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북면에 거주하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영세민을 포함한 불우·독거노인 57가구에 가구당 350장씩 총 2만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날은 총회원 400여명 중 120명이 참여해 회원 개인차량 30여대가 동원돼 연탄을 각 가구에 직접 배달했고 이번 행사를 위해 전액기수연합회 회비 등 자체자금 500만원이 소요됐다.

이날 구입한 연탄은 개당 230원으로 배달을 기수연합회회원이 직접 하는 조건으로 구입했으며, 수혜 영세민 등 불우이웃에 대한 자료는 영북면사무소 복지계의 협조를 받았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부터 배송장 면장 및 총무계장 등 면사무소 직원도 행사에 함께 참여했으며, 기수연합회 회원들의 부인들도 집에서 밥과 국, 밀반찬 등을 준비해와 점심대접을 하는 등 음식으로 양양도 도왔다.

이날 수혜를 받은 한 독거노인은 “겨울나는 일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겨울은 석유보다도 값진 연탄을 받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 hsd5333@hanmail.net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영북면 기수연합회는 지난 25일 영북면에 거주하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영세민을 포함한 불우·독거노인 57가구에 가구당 350장씩 총 2만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전상수회장은 “기수연합회가 주축이 돼 실시한 연탄배달이지만 보다 많은 시민이 불우이웃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침부터 개인, 영연용 차량을 몰고 나와 배달 자원봉사에 나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수혜 영세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북면 기수연합회는 36세에서 48세까지 청·장년들로 구성된 친목·봉사단체로서 실질적인 영북면 청년회 역할을 수행하는 기수연합회는 1993년도에 결성돼 해마다 꾸준히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 노인경로잔치 등 봉사활동 및 자체 연합대회 겸 체육대회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